

내적인 변화가 중요하다 🍷

나는 청소년 시절에 가게에서 도둑질을 하는 나쁜 버릇을 가지고 있었습니다.
그저 내 눈에 보이는 것을 갖고 싶어서 물건을 훔쳤습니다.

그때 나는 경찰관에게 다시는 도둑질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.
그리고 그 뒤로 나는 도둑질을 하지 않았습니다.
결과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.

그러나 도망만 칠 수 있다면, 늘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고 싶어 하는 마음은 여전했습니
다.

좀더 나이가 들어 회사에 들어가게 되자 나는 내가 쓴 비용들에 대한 보고서를 마음대로 위
조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.

회사 용품을 개인용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.

나는 밖으로는 변해 있었지만, 내적으로는 오랜 기간동안 여전히 도둑이었던 것입니다.

그러나 나의 참된 내적 변화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찾아왔습니다.

나는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서 중시하는 가치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.

그러면서 다른 사람들과 그들의 소유를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.

또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쓸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이며, 내가 원했던 것들이 결코 만족을 줄
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.

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,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대신,
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.

마음이 변화되자, 행동도 바꾸고 싶어 졌습니다.

이제는 더 이상 누구의 것도 훔치고 싶지 않습니다.

이렇게 해서 비로소 외적인 품행은 내적인 확신과 나란히 가게 되었습니다.

이렇듯 참된 외적 변화는 내적인 변화와 함께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.

<그분의 형상대로/마이클 월킨스>

🍷.....여러분의 가장 깊은 한숨을 아시는 그분을 만나십시오. 「더 깊은 묵상」 제공